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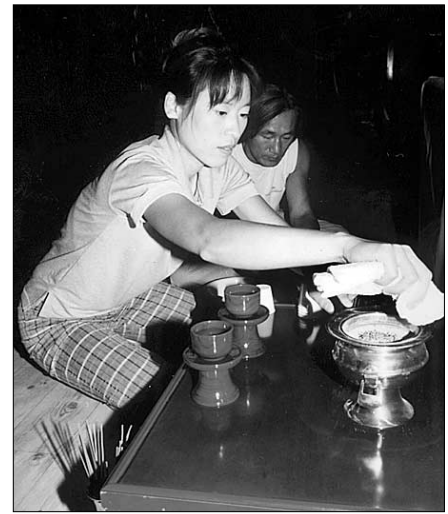


절 일 함께하니 금실 좋아요

울산 미륵정사 안병용거사, 김미애보살 부부

울산 간월산의 아름다운 풍광속에 자리잡은 미륵정사는 한국불교 미륵종의 중앙 교육원이자 약사도량이다. 그래서 교육받기 위한 종단의 스님들과 몸이 아픈 불자들이 한데 섞여 365일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명의 신도라도 일손이 절실한 상태. 대다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소화해 내고 있지만, 안병용 거사(49)와 김미애 보살(35) 부부는 미륵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꾼들이다.

일 쓸며 정리정돈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들 부부가 이와같이 각자 하는 울려도 있지만 함께하는 일도 있다. 부처님전에 올리는 공양물을 준비할 때는 일심동체가 되어 일을 한다. 불단에 올릴 다기와 촛대, 향로 등을 닦기도 하고, 과자와 과일들을 정성껏 그릇에 담기도 한다. 특히 행어 참배객들에게 흐트러진 불단의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해서 조연자가 되어 제수용품들을 가지런히 진열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 이들은 울려도 하나의 수행처럼 여긴다. 그래서 사찰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



정성스럽게 법당의 불기를 닦는 안병용·김미애 부부.

한눈에 봐도 건강미가 절절 넘쳐 흐르는 안 거사는 역시 집나르기와 법당

안병용-모든 수리 척척 '맥가이버 거사'

김미애-법당 항상 깨끗 '진공 청소기 보살'

부처님전 공양물 준비할 땐 부부 일심동체

내부 수리 공사 등 일을 도맡아 한다. 웬만한 수리는 굳이 외부 인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의 두 손으로 거의 해결된다. 일명 '맥가이버 거사'로 통한다.

반면 김미애 보살은 공양실에서 밥을 짓거나 찬거리를 만든다. 하지만 주 특기는 법당 청소다. 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을 찾는 이들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정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매

까지 수행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김 보살은 "우리 사찰은 1백평 규모로 불자들에게 단기 수련회를 자주 마련해 사찰을 찾는 이들의 식사준비는 물론 도우미 역할도 해야 한다"며 "모든 신도들이 힘을 합쳐 잘 해나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과 함께 절 일을 하니 부부 금실도 좋아지고 우리절에 애착을 많이 갖게 된다"고 즐거워 한다. (052)264-6487 김주일 기자



주현의 말 해각스님 미륵정사 주지

안병용 거사와 김미애 보살 부부는 사찰 근처에 살면서 절에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집안일 하듯이 언제든지 달려와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우리절은 법당과 함께

실천행 펼치는 모범 불자

미륵종단의 연수원과 행사교육원도 함께 있어 크고 작은 행사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 부부는 어떤 일을 맡겨도 묵묵히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보살행을 펼치는 모범을 보이죠. 이런 실천행이 평소 신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녹야원에 한국 불상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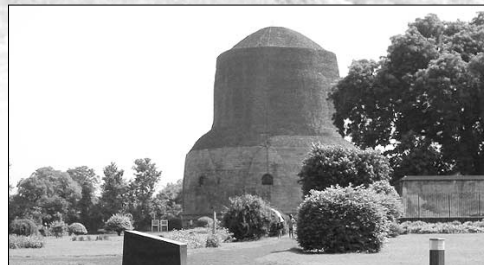
한인수교 30주년 기념, 12월 30일 점안
롬비나, 쿠시나가르 등 7대 성지도 순례

현대불교신문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최초로 설립하신 성지 녹야원에 한국전통 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봉안한다. 불상점안 법회는 12월 30일 성도절을 맞아 녹야원에 위치한 대각회 마하보디사르트센터(Maha Bodhi Samath Center)에서 해종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을 법주로 열린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마하보디사르트센터는 스리랑카 근대 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르마팔라(Dharmapala : 1864~1933)가 조직한 대각회

(Mahabodhi Society) 사르나트 지부가 있는 곳이다. 이 안에는 무르간다쿠티비하라 사원이 있어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불상이 모여져 있지만 유독 한국 불상만 없어 성지를 참배한 한국 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성지 복원운동의 일환으로 불상을 점안하고 본격적인 인도불교와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점안법회에는 대각회 부회장 등 현지 불교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아울러 리선행 법사(형성 즉립정사의 안내로 10박 11일간 사르나트(녹야원)와 보드가야, 쿠시나가르, 라즈기르, 바라나시, 아그라, 롬비나 등을 돌아보는 부처님 7대 성지도 순례한다. 동행문의 (02)737-8881



인도 바라나시 교외, 녹야원에 우뚝 선 스투파.

인도불교 4대 성지

△ 롬비나

부처님의 탄생성지. 가비라국 정변왕의 부인인 마야부인에게서 출산을 위해 친정인 폴리국으로 가던 중 산기를 느껴 이곳 동산에서 무우수 가지를 잡고 낯낯의 부처님인 싯다르타를 출산하였다. 태자를 낳자 이레만에 세상을 뜬 곳으로 마야데비 사원과 연못, 아쇼카 석주 등이 사원터와 함께 남아 있다.

△ 보드가야

성지도. 우루벨라 마을 근처의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 7일 만에 정각을 이루신 곳으로 마하보디 대탑과 보리수, 무질란다 연못, 전정각산과 유영굴, 니런선사, 수자타 마을 등을 볼 수 있는 성지이다.

△ 사르나트(녹야원)

초전법륜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바라나시 교외의 녹야원에서 교건여 등 5비구를 만나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 등 최초의 진법을 하신 곳. 또 박물관에 소장된 부처님의 초전법륜상과 오늘날 인도의 국가 문장이 된 아쇼카 석주의 사자상이 유명하다.

△ 쿠시나가르

열반지. '비구들이여,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게으름없이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부처님께서 사라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신 곳으로 니르바나 사원과 사리탑, 사라쌍수, 마지막 설법지, 다비장과 라마바르 스투파 등이 남아 있다.

김주일 기자

대각회(Mahabodhi Society)와 다르마팔라

성지 복원운동 위해 인도 전역에 설립
학교, 병원운영, 스님 배출에도 심혈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가 20대 초반에 부처님께 참배하기 위해서 보드가야 대탑에 들렀을 때, 힌두사원이란 이유로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다르마팔라는 인도 전역에 마하보디 사사 이터(대각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부처님 성지 복원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하보디는 대각(大覺)

이란 뜻이다. 1892년 처음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불교운동을 시작한 곳은 캄페디이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 대각회 본부가 있다.

다르마 팔라는 평생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금하여 부처님 성지마다 절을 짓고, 여행자 숙소를 지으며 성지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병원과 여행자 숙소도 운영하고 있다. 소사이어티를 근거로 많은 스님들이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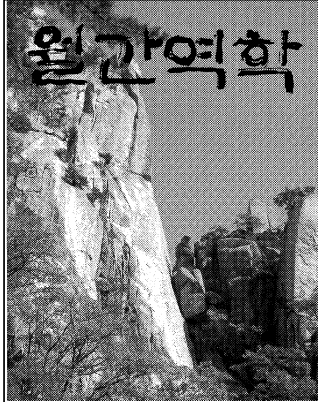


한국불상 봉안 법주 해종스님

"올해가 인도와 수교한지 30주년임은 정치 외교 경제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적으로도 더 긴밀한 교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번에 녹야원에 한국불상을 모시고 참배객들을 맞이하게 하는 불사는 매우 뜻깊다고 봅니다." 한국-인도 수교 3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주최하는 기념행사인 '녹야원 한국불상 봉안 법회'의 법주를 맡은 해종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9번의 인도성지순례시 성지마다 법회를 열어왔다는 스님은 성지인애 한국불상이 모셔지고 세계인들이 참배하게 되는 일은 의미깊은 불사라고 설명한다. 이번에 부처님 점안 불상법회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도절날 그것도 독특하게 저녁시간에 열린다. 성지를 순례하는 많은 참배객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오전과 낮시간을 피한 것이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풍수지리·사주명리·관상학과 유·불·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포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월간역학에서는 역학전문학원이 월간역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원을 졸업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수여하며 개업시 월간역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www.kbs.cc)를 듣는 분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7만원)

강익실 수강생 모집
사주(중급·실전반), 관상(마의성법) 풍수(금강경), 수상, 육효
과목당 월 10만원(3개월단위접수)
월간역학교육원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관룡자로 당신이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통척이라고도 불리며, 이미 수천년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사용되던 기구로,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진산실업(주)에서만 생산 공급합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랜동안 번성해오는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릉, 남연교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종의 묘, 일본 동경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유적과 시설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작동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지지 못한 명당자리도 국내에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교육장을 역임하신 김모선생께서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에 은행나무 묘목을 이식하였는데, 수령 2년생인 나무 모두에서 호두알 굵기의 은행 열매가 50~70여개씩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생께서는 이것을 보고 명당의 지기를 실감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풀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모교수는, 자신은 관룡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기구가 명당을 찾을 수 있다면 왜 나한테 배우려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가장 아까운 제자는 자신이 직접 대리고 와서 관룡자를 구입해 했습니다. 경상도의 김모교수, 서호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룡자를 은밀히 사용해 오지만, 어쩌다가 주위 사람들 눈에 띄면 "이것은 수십년전에 중국의 한 도사가 전해 준 것으로 국내에 있는 건 모두 가짜다"라고 합니다. 전라도 김모선생의 경우 "함께 풍수 공부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룡자를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모두 가짜라고 하니 제발 사지말라'고 고쳐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관룡자를 사용해오는 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명(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남골당, 공원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방향)까지 잡을 수 있으므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륜가, 풍수지리사 등 50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원래 관룡자는 88만원 인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관룡자(88만원)+월간역학 1년분 (105,600)=985,600원을 80만원으로 할인해드립니다. ■구입방법 : 수협 227-01-002756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려주시면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체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구입 후 반품을 원하시면 1개월 이내 언제든지 즉시 환불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원으로 할인+ 수택택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주머니형 수제품 미니관룡자(항구 18x 헤드)주문제작 • 육효용 수제품 서쪽과 산쪽세트 판매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청음빌라 101호

www.kbs.cc